

지볼트 간행 『類合 LUIHÖ』 연구*

Study on Siebold Version (『類合 LUIHÖ』) of the *Yuhap*

손 회 하 (Son, Heuiha)**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類合 LUIHÖ』의 정서·표기 면의 특징 |
| 2. 『類合 LUIHÖ』의 서지 및 관련 사항 | 4. 결 론 |
|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 간행 『類合 LUIHÖ』를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이 문헌의 서지와 이 문헌에 나타난 정서·표기 모습 등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볼트 간행 『類合 LUIHÖ』는 독일 출신 네덜란드 의사인 지볼트가 1838년 네덜란드 레이던(Leiden)에서 출간한 『類合 LUIHÖ』의 초판본이다. 이 문헌은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레이던 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다. 고찰 대상인 국립국어원 소장본은 원소장자 라이먼(Benjamin Smith Lyman, 1835-1920)이 1874년 11월 29일 일본 에도(동경)에서 입수한 것으로 라이먼 사후에 라이먼의 상속인이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포브스 도서관(Forbes Library)에 기증(1921년 11월 30일 등록)한 라이먼 소장품의 하나였다가, 2007년 1월 국립국어원이 이를 구입하여 현재 소장하고 있다.

검색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크기는 표지는 가로 29.65cm, 세로 37.35cm이고, 속지는 가로 29cm, 세로 36.75cm이다. 분량은 42쪽이다. 종이가 좀 산화하고 아래 부분에 약간 물기를 먹었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책의 구성은 ‘표제지 + 간지(1장 2면) + 유합 원문 전사(10면, 쪽 번호 1-10, 1512자) + 간지(1장 2면) + 부록(APPENDIX)[8면, 쪽 번호 1-8, 455자(또는 단어나 구), 참고 문헌 + A. 시조(조선가) 1수 + B. 한시 1(天地之間海爲大……) + C. 한시 2(三國既會此房中……)] + 독역 유합(LUIHÖ)(20면)’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유합·부록 등은 석인 평판 인쇄이고, 독일어 번역 부분은 활판 인쇄이다. 한글, 한자,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하였음.

이 논문은 2008년 1월 17일(목)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어사학회 2007년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지볼트판 <類合>에 대하여)을 읽고 더한 것이다. 도움 말씀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19509@daum.net)

접수일: 2016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가나가 들어 간 원문을 전사한 부분인 유합·부록 등을 석인 평판 인쇄한 것은 간행자가 한글, 한자, 가나 문자의 자형을 최대한 모본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당시 네덜란드에는 한글 등 문자를 활판 인쇄할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인 간행을 위한 정서는 지볼트의 중국인 비서 郭成章(Ko Tsching Dschang)이 한 것인데 오류가 적지 않다. 『類合 LUIHŌ』의 ‘유합’ 원문 전사 부분 오류 중에는 모본의 오기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 오자나 한자 자형에서 야동신판본 『類合』과만 일치하여 『類合 LUIHŌ』의 모본이 야동신판본계 『類合』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類合 LUIHŌ』의 ‘유합’은 1512자본으로 1면 10행이며, 1행 16자, 총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느 조선 간행본과는 달리 한자 오른쪽에 한자 새김을, 한자 왼쪽에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 몇몇 한자는 새김을 달지 않은 것도 있으며, 연달아 나오는 두 한자의 새김이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새김을 한 번만 달거나 ‘同’자로 표기하고 있다. 군데군데 ‘ㅇ’(엣이응)을 쓰고 있으나, 이는 ‘ㅇ’과 다르지 않다. 합부선은 연이어진 한자가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그은 것으로 보인다.

『類合 LUIHŌ』는 당시 조선의 유합을 외국인인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19세기 초 한국어 학습 자료요, 한자 학습 자료이며, 우리에게서 한자 새김(훈)과 한자음, 국어 어휘 등 당시 국어 양상을 살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족한 국어사 자료를 보충해 주는 구실을 할 것이며, 국어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본과 대조 고찰하여 『類合 LUIHŌ』의 오자를 살펴보면 간행 당시 외국인의 한글 글꼴의 인식력과 정서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오자를 통하여 한글 글꼴 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오독하게 되는 글꼴의 잘못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볼트가 1838년 간행한 『類合 LUIHŌ』는 1852년판 『NIPPON』에 실린 합책 이전의 분책본 ‘『類合 LUIHŌ』’의 실물이 드러났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또 서구에서 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한 우리나라 서적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으며, 부록에 실린 독역 유합 ‘LUIHŌ’는 19세기 독일어 어휘 자료 및 독일어 어휘사 자료로, 일본어 훈과 음 등은 19세기 일본어 학습 자료 및 일본어사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

要語: 지볼트간본 유합(『類合 LUIHŌ』), 지볼트, 국어사, 새김(훈, 자석), 한자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idely introduce Siebold version of the *Yuhap* (類合 LUIHŌ), one of the *Saegim* (새김) materials of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Another purpose is to examine several features such as bibliographical forms and writings and spellings appearing in this literature.

This Siebold version of the *Yuhap* was published by 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 in Leiden, the Netherlands in 1838.

This literature is now own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IKL), the University of Leiden, etc. The NIKL version is a hard covered book, 29.65 cm in width and 37.35 cm in height. That book has total 42 pages. Some part of its papers is slightly oxidized and it has a little bit of water beneath, but is preserved in good condition overall.

It was obtained by Benjamin Smith Lyman (1835-1920) on November 29, 1874 in Tokyo, Japan. After the death of him, the book was donated to the Northampton Forbes Library in Massachusetts, USA by his heir. Now it is in the possession of the NIKL.

This literature is consisted of 'inside title + slip sheet (2 pages) + transcription of *Yuhap* (10 pages, 1512 characters) + slip sheet (2 pages) + appendix [8 pages, 455 words (words or phrases), references + A. *Sijo* (traditional three-verse Korean poem) + B. Sino-Korean poem 1 (天地之間海爲大……) C. Sino-Korean poem 2 (三國既會此房中……)] and a German translation of *Yuhap* (LUIHÖ) (10 pages)'.

The German translation part is printed in a letterpress printing. Parts of the transcription of *Yuhap* and the appendix are printed in lithography. It is because that parts of the transcription of *Yuhap* and the appendix include Korean letters, Chinese characters, and Kanas. This literature is transcribed by Ko Tsching Dschang who is Siebold's Chinese secretary. There are many errors and misspellings in it. It is significant that some errors seem to be copied as they are in the model version. It can be inferred that Siebold version and *Yadong* version are cognate species, because they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in misspellings and the font of Chinese characters particularly.

The Siebold's version is consisted of 1512 characters (16 letters per line, 10 lines per page). Unlike the other *Joseon* versions, it is on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Chinese character that Korean letters are place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類合 LUIHÖ』 version, published by Siebold in 1838, is significant as it reveals the reality of "*Yuhap*", a book that was published in the 1852 edition of NIPPON. It has also great value for being the first book of Korea translated in German language in Europe.

Key words: Siebold version (『類合 LUIHÖ』) of the *Yuhap*, Philipp Franz von Siebold, Korean language history, *Saegim* (Korean meaning of Chinese written characters), Sino-Korean

1. 서론

이 연구는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가 간행한 『類合 LUIHÖ』를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이 문헌의 서지와 이 문헌에 나타난 정서·표기 모습 등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類合 LUIHÖ』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독일어 번역을 곁들여 외국인의 손으로 출간한 『類合』으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연구 자료로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또 이 자료에 나타난 문자와 언어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볼트가 출간한 『類合 LUIHÖ』는 당시 조선의 유합을 외국인이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19세기 초 한국어 학습 자료요, 한자 학습 자료이며, 우리에게서는 한자 새김(훈)과 한자음, 국어 어휘 등 당시 국어 양상을 살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족한 국어사 자료를 보충해 주는 구실을 할 것이며, 국어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類合 LUIHÖ』는 외국인이 정리한 자료라는 점에서 모본과 대조 고찰하여 오자를 살피면 간행 당시 외국인의 한글 글꼴의 인식력과 정서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하여 한글 글꼴 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독하게 되는 글꼴의 잘못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類合 LUIHÖ』는 여러 면에서 연구 의의가 있어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類合 LUIHÖ』의 서지와 이 문헌에 나타난 정서·표기 모습 등의 주요 특징만을 국립국어원 소장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類合 LUIHÖ』의 서지 및 관련 사항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類合’은 독일 출신 네덜란드 의사인 지볼트가 1838년 네덜란드 레이던(Leiden)에서 출간한 『類合 LUIHÖ』의 초판본이다.¹⁾ 이 문헌은

1) 지볼트의 행적에 대해서는 고영근, “지볼트의 한국기술 연구,” 『동양학』 19(1989)에 잘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레이던 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다.

고찰 대상인 국립국어원 소장본은 원래 고서점 아트뱅크의 윤희원 대표가 해외에서 입수한 것을 국립국어원이 구입한 것이다.²⁾

장정은 검색 하드커버 양장 장정이다. 책표지의 책등 중간 부위에 금박으로 “LUI HO _ SIEBOLD”라고 책명과 저자명이 인쇄되어 있으며, 책등 하단에 흰색으로 “Y67//Si V. 4”라고 필사되어 있다.³⁾ 흰색 글씨는 도서 분류 기호로 보인다. 크기는 표지가 가로 29.65cm, 세로 37.35cm이고, 속지는 가로 29cm, 세로 36.75cm이다. 분량은 42쪽이다.⁴⁾ 종이가 좀 산화하고 아래 부분에 약간 물기를 먹었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책의 구성은 ‘표제지 + 간지(1장 2면) + 유합 원문 전사(10면, 쪽 번호 1-10,)⁵⁾

간추려져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독일계 네덜란드인 지볼트는 의사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어서 1823년부터 1830년 사이에 일본 나가사키(長崎) 데지마(出島)에서 근무했다. 주관심 분야는 일본의 문화와 자연이었으나, 조선 문화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으며, 1828년에는 조선의 난파 선원 등을 만나 조선에 대한 실상을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지볼트는 5차에 걸쳐 『NIPPON』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의 제7부에 이 『類合 LUIHÖ』가 합본으로 실려 있다.

기타 지볼트에 관한 것은 이 글에서 도움을 얻었다.

책자에는 간행지가 ‘Lugduni Batavorum’로 되어 있는데, 이는 레이던의 옛 이름이다.

- 2) 2006년 4월 11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참조하기를 바람.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마침 필자는 당시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여 ‘유합’의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마침 필자가 국립국어원 국어정책진흥본부장 겸 언어정책부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7년 1월 국립국어원이 이 문헌을 구입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필자는 이 문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 3) <사진 1>을 참조하길 바람.

흰색 글씨와 같은 내용이 뒤표지 안쪽 첩지에도 붉은색으로 적혀 있다.

- 4) 이는 국립국어원 소장본을 필자가 실측한 것이다. 필자는 레이던 대학 소장본도 2016년 7월 실사한 바가 있는데, 레이던 대학 소장본 실사는 레이던 대학 왈라벤(Boudewijn Walraven) 교수님과 레이던 대학 도서관 일본 연구 사서·한국학 사서 나디아 크레프트(Nadia M. Kreeft MA)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여기에 이 사실을 적어 감사한다.

『類合』 등을 합책한 1852년 판 『NIPPON』이 가로 28.5cm, 세로 38cm로 이와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고영근(1989), 11 참조).

- 5) 유합 등 전사 부분에는 쪽 번호가 붙어 있다. 홀수 쪽에는 우상귀에, 짝수 쪽에는 좌상귀에

1512자) + 간지(1장 2면) + 부록(APPENDIX)[8면, 쪽 번호 1-8, 455자(또는 단어나 구),⁶⁾ 참고 문헌⁷⁾ + A. 시조(조선가) 1수⁸⁾ + B. 한시 1(天地之間海爲大……) 9) + C. 한시 2(三國既會此房中……)] + 독역 유합(LUIHÖ)(20면)’으로 되어 있다.¹⁰⁾

이 중 뒤쪽에 붙은 독일어 번역 부분만 활판 인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붙어 있다.

- 6) 한자 낱자 또는 단어나 구에 연번 ‘1~455’를 붙여 놓았다(자번이 없는 것도 있음). “1. 天 하늘 / 텃 / テソ / アマ(부록 1)”처럼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 오른쪽으로는 한글 새김과 음이, 왼쪽으로는 일본어 훈과 음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붙어 있다. “2. 地 / 당·짜 / 디 / チ / ツチ(부록 1)”, “7. 月 / 돌 / 월. 열 / ゲツ / グハツ / ツキ(부록 1)”처럼 새김이나 한자음, 일본어 훈이나 음이 둘 붙어 있는 것도 있다. 이때에 복수 새김(훈)이나 한자음은 상하로 권점(◦)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고, 일본 훈과 음의 경우는 좌우로 나란히 권점 없이 배열하고 있다. “32. 日月入 / 히달 지 다 / 일월입 / 니치 ゲツ シフ / 지쯔 クハツ ニフ / 지쯔 ゲツ / 이리(부록 1)”처럼 한자 낱자가 아닌 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38. 阿蘭陀 / 아난다 / アラ ヌタ(부록 1)”처럼 새김이 달라지 않은 것도 있다(<사진 6>, <사진 7>을 참조하길 바람). 부록에 실린 일본어 훈과 음은 19세기 일본어 학습 자료 및 일본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보인다.
- 7) I. 東國通鑑, II. 朝鮮物語, III. 三國通覽圖記, IV. 朝鮮太平記, V. 千字文, VI. 倭語類解 目錄 등 6권이 적혀 있다(<사진 7>을 참조하길 바람).
- 8) A. 朝鮮歌 세상의 알문 거시 거모밧긔 다시 업너 제 밋터 줄롤 내야 만경 그믐 마자 늦고 곳 보고 웃는 나비롤 잡으랴고 [원문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음.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띄어 씀.](<사진 7>을 참조하길 바람).
- 9) “天(텃 하늘)地(디 당)之(지 갈)間(간 스이)海(히 바다)爲(위 홀)大(대 클)…….” 특대자로 쓴 한자 좌우로 새김과 음이 붙어 있다(<사진 8>을 참조하길 바람). 이는 고영근(1989) 55쪽에 보이는 모본, 곧 원래 朝鮮全羅道 金致潤이 쓴 것을 다시 필사한 것이다(고영근(1989), 11 참조). “三國既會此房中……”(朝鮮國全羅道康津許士瞻書 道선 국전나도경[강]진허스첨서)와 같은 필체이다.
- 10) 독일어 번역 부분은 2단 편집으로 되어 있는데, 매 단이 조선 한자음의 음역, 의미의 독역, 새김의 음역 순으로 되어 있다. 한자음 앞 구별 시작 부분에 유합 자순 번호를 붙여 구분하고 있다. 매 상단 첫 글자에도 번호를 붙이고 있는데, 344, 511번에는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번호는 100단위, 1000단위의 경우에는 상단 시작 부위만 온전히 표기하고, 그 아래에는 10단위까지만 표기하고 있다(단 새로 다음 100단위로 변하면 온전히 적음.). 24자마다 한문 문장 시작은 한자음 모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4자 1구의 구 시작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여 구별하고 있다. 새김의 독역은 둘 이상 달기도 한다. 한국어 새김은 사체로 새김을 음역하는데, 둘 이상 달기도 한다. 군데군데 각주를 달고, 같은 뜻, 같은 음인 경우에는 중괄호로 묶기도 한다. 독역 유합 ‘LUIHÖ’는 19세기 독일어 어휘 자료 및 독일어 어휘사 자료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독역 부분의 자세한 고찰은 별고로 미룬다.

곧 유합·부록 등 원문을 전사한 앞부분은 석인 평판 인쇄이다.¹¹⁾ 유합·부록 등을 석인 평판 인쇄한 것은 한글, 한자, 가나가 들어 간 원문을 전사한 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간행자가 한글, 한자, 가나 문자의 자형을 최대한 모본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당시 네덜란드에는 한글, 한자, 가나 문자를 활판 인쇄할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인 간행을 위한 정서는 지볼트의 중국인 비서 郭成章(Ko Tsching Dschang)이 한 것이다.¹²⁾

표제는 “合類[類合]¹³⁾ / LUI HÖ, / sive / VOCABULARIUM SINENSE IN KÔRAÏANUM CONVERSUM ; / Opus Sinicum origine in peninsula Kôraï impressum”으로 한자 ‘類合’과 이의 중국어 발음 ‘LUIHÖ’를 대자로 쓰고 그 아래에 ‘類合’의 의미를 라틴어로 풀어 좀 작은 글자로 적어 놓았다.¹⁴⁾

앞표지 안쪽에 “The Benjamin Smith Lyman Collection / 〓 / Given as a Memorial / to Forbes Library / Northampton, Mass. / by His Heirs”라는 장서표가 붙어 있다.¹⁵⁾ 표지 안쪽에 “FORBES LIBRARY NOTRTHAMPTON, MASS.”, “NORTHAMPTON” 등 문양이 있다.¹⁶⁾ 표제지에는 “FORBES LIBRARY / NORTHAMPTON / MASSACHUSETTS”라고 천공되어 있

11) <사진 3>에 보이는 것처럼 표제지에 “EX OFFICINA LITHOGRAPHICA EDITORIS”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이 석인판임을 방증해 준다.

이 책의 표제지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에 도움을 주신 전남대학교 철학과 이강서 교수님께 감사한다.

12) 고영근(1989), 26.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13) <사진 3>에 보이는 것처럼 한자 ‘類合’은 ‘合類’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 놓았다. 이는 한중일미의 글자 쓰기법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類’자의 한자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米犬頁’이 아닌 ‘米女頁’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 안의 글자는 필자가 교정한 것이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14) 사선 표시(/)는 행 바꿈을 표시한 것이다.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15) <사진 2>를 참조하길 바람. 전서체 도장 형식으로 된 〓은 소장자인 Lyman의 중국어 표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은 것이다.

사선 표시(/)는 행 바꿈을 표시한 것이다.

16) 앞표지 안쪽의 문양 중이로 볼 때에 포브스 도서관(Forbes Library)이 이 책을 수장한 후에 다시 장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¹⁷⁾ 왼쪽 상단에 연필로 “Benj. Smith Lyman / 29 Nov. 1874 Yedo.”라고 적혀 있으며,¹⁸⁾ 현 소장처인 국립국어원 장서인과 등록 일부인(“2007. 1. 30”)이 찍혀 있다.¹⁹⁾ ‘유합’ 원문 전사 첫 장에 “Nov. 30, 1921-G.L.”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²⁰⁾ 뒤표지 안쪽에 붉은 색으로 “Y67//SI V.4”라고 필사한 종이가 붙어 있다.²¹⁾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국립국어원 소장 『類合 LUIHÖ』는 원소장자 라이먼(Benjamin Smith Lyman, 1835-1920)이 1874년 11월 29일 일본 에도(동경)에서 입수한 것으로 라이먼 사후에 라이먼의 상속인이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포브스 도서관에 기증(1921년 11월 30일 수장 또는 등록)한 라이먼 소장품의 하나였다가,²²⁾ 현재 국립국어원이 이를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 『類合 LUIHÖ』의 모본 ‘『類合』’은 1832년 러시아 제국 정부의 명령으로 Kiatcha 지방을 여행한 Schilling-Candat 남작이 북경 선교사회 관구장인 Hyacinth 신부에게서 얻은 것을 지볼트에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그동안 지볼트가 간행한 『類合 LUIHÖ』는 1852년판 『NIPPON』에 실린 것은 실물이 알려져 왔으나, 그 이전 간본은 실물의 모습이 드러난 바가 없었다. 지볼트가 1838년 간행한 『類合 LUIHÖ』는 1852년판 『NIPPON』에 함책으로 실린 이전의 분책본 ‘『類合 LUIHÖ』’의 실물이 드러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²⁴⁾ 또 서구에서

17)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같은 천공이 독역 부분의 1181번 하단부에도 있다.

18)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이는 원소장자가 입수 당시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사전 표시(/)는 행 바꿈을 표시한 것이다.

19)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본문 맨 마지막 쪽에 국립국어원 장서인이 하나 더 찍혀 있다.

20) 이는 도서 등록 날짜로 보인다.

21) 이는 책의 겉표지 책등의 흰색 글씨 내용과 일치하는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 소장처인 포브스 도서관의 도서 분류 기호로 보인다.

22) 라이먼의 행적에 대해서는 <<http://www.mtholyoke.edu/~sdomier/lyman.html>>, <https://en.wikipedia.org/wiki/Benjamin_Smith_Lyman> 등을 참고하였음.

23) Hyacinth 신부는 해당 책자를 북경의 조선 사절로부터 얻은 것이다[고영근(1989), 26].

24) 1838년 간행본은 그동안 간행 사실만 알려지다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2006년 4월 10일자

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한 우리나라 서적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²⁵⁾

3. 『類合 LUIHÖ』의 정서·표기 면의 특징

이 장에서는 지볼트 간행 『類合 LUIHÖ』의 정서와 표기면의 특징을 살펴보고
록 한다.

지볼트간본 『類合』은 1512자본으로 1면 10行이며, 1行 16자, 총 10면으로 구성
되어 있다.²⁶⁾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 오른쪽에 한자 새김을, 한자 왼쪽에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²⁷⁾

그런데 몇몇 한자의 경우에 새김을 달지 않은 것도 있다.²⁸⁾

10. ²⁹⁾ 拾 십(지유 1) ³⁰⁾	11. 百 백(지유 1)
12. 千 천(지유 1)	13. 萬 만(지유 1)
14. 億 억(지유 1)	329. 鳳 봉(지유 3)
330. 鸞 난(지유 3)	

새김을 달지 않은 것은 위에 보인 첫 5자처럼 새김과 음이 같은 경우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대개 연달아 나오는 두 한자의 새김이 같은 경우이다.³¹⁾ 이처럼 연달

“조선일보”를 통하여 비로소 실물이 알려졌다.

25) 2006년 4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고영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길 바람.

26) 유합의 한자 수는 대개 1512자본이다. 무신간판본 『類合』은 여느 판본보다 6자를 추가한 1518자이며, 호은재장판본 『類合』은 무신간판본 『類合』보다도 36자를 추가한 1554자이다 [안병희, “해제,” 『新增類合』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234.; 이석구, “유합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3-7 등을 참조하길 바람].

27) <사진 4>, <사진 5>를 참조하길 바람.

28) <사진 4>, <사진 5>를 참조하길 바람.

29) 숫자는 유합 자순의 연번이다. 지볼트간본 『類合 LUIHÖ』에는 줄마다 맨 윗 자와 매 면
마지막 자에 자번을 붙여 놓았다. 『類合 LUIHÖ』에는 한 면에 160자가 실려 있어서 면수만
표시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찾아보기 쉽도록 연번을 함께 표기한다.

30) 출전 표시 ‘(지유 1)’은 ‘지볼트판본 『類合 LUIHÖ』 1쪽’을 의미함.

31) 위 보기 ‘鳳’자와 ‘鸞’자는 새김이 ‘328. 新’자의 새김 ‘새’와 음이 같아서 달지 않은 것으로

아 나오는 새김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 <표 1> 보기처럼 대개 새김을 한 번만 달거나 ‘同’자로 표기하고 있다.³²⁾

<표 1> 같은 새김 표기 방식

①	②	③
111. 벽 霹 벽 112. 력 霹 력 (지유 1)	113. 홍 虹 무 지 114. 예 霓 게 (지유 1)	125. 세 歲 히 126. 년 年 同 (지유 1)
④	⑤	⑥
191. 표 縹 아 192. 묘 縹 홀 (지유 2)	205. 서 薯 206. 여 筴 마 (지유 2)	493. 붕 朋 벗 494. 우 友 (지유 4)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것을 일부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111. 霹 [벽력] 벽(지유 1) | 112. 霹 [벽력] 력(지유 1) |
| 117. 氣 [기운] 기(지유 1) | 118. 候 [기운] 후(지유 1) |
| 209. 牡 [모란] 모(지유 2) | 210. 丹 [모란] 단(지유 2) |
| 211. 芍 [자약] 약(지유 2) | 212. 藥 [자약] 약(지유 2) |
| 213. 薔 [장미] 장(지유 2) | 214. 薇 [장미] 미(지유 2) |
| 215. 躑 [척축] 척(지유 2) | 216. 躑 [척축] 축(지유 2) |
| 217. 芭 [파초] 파(지유 2) | 218. 蕉 [파초] 초(지유 2) |
| 219. 菰 [창포] 창(지유 2) | 220. 蒲 [창포] 모[포](지유 2) |
| 257. 梧 [머귀] 오(지유 2) | 258. 桐 [머귀] 동(지유 2) |
| 259. 楊 [버들] 양(지유 2) | 260. 柳 [버들] 류(지유 2) |
| | |

보인다.

32) 연이어 같은 새김이 나오는 경우이지만 그대로 반복하여 적는 경우도 있다[53. 星 별 성(지유 1) 54. 辰 별 진(지유 1)……].

<사진 4>, <사진 5>를 참조하길 바람.

- ② 113. 虹 [무지개] 홍(지유 1) 114. 霓 [무지개] 예(지유 1)
- ③ 125. 歲 혁 세(지유 1) 126. 年 同[혁] 년(지유 1)
 147. 溪 시내 계(지유 2) 148. 澗 同[시내] 간(지유 2)
 149. 峯 뒤편 봉(지유 2) 150. 巒 同[뒤편] 만(지유 2)
 151. 丘 언덕 구(지유 2) 152. 岸 同[언덕] 안(지유 2)
 157. 洞 窟[굴] 동(지유 2) 158. 谷 同[굴] 곡(지유 2)
 159. 池 못 지(지유 2) 160. 淵 同[못] 연(지유 2)
 161. 郊 들 교(지유 2) 162. 野 同[들] 야(지유 2)
 167. 畦 이랑 규(지유 2) 168. 畝 同[이랑] 묘(지유 2)
 179. 江 물 강(지유 2) 180. 湖 同[물] 호(지유 2)
 181. 汀 물갯 덩(지유 2) 182. 洲 同[물갯] 주(지유 2)
 183. 渚 물갯 저(지유 2)
- ④ 191. 縹 [아득할] 표(지유 2) 192. 縹 [아득할] 묘(지유 2)
 207. 苜 [게유품] 목(지유 2) 208. 菰 [게유품] 숙(지유 2)
 387. 猿 [진나비] 원(지유 3) 388. 猴 [진나비] 후(지유 3)
 447. 蜻 [곤자리] 청(지유 3) 448. 蜓 [곤자리] 덩(지유 3)
- ⑤ 205. 薯 [마] 셔(지유 2) 206. 筴 [마] 여(지유 2)
- ⑥ 493. 朋 벗 봉(지유 4) 494. 友 [벗] 우(지유 4)
 631. 身 몸 신(지유 5) 632. 體 [몸] 테(지유 5)
 691. 毳 비파 비(지유 5) 692. 毳 [비파] 파(지유 5)
 705. 文 글월 문(지유 5) 706. 書 [글월] 셔(지유 5)
 745. 脂 기름 지(지유 5) 746. 膏 [기름] 고(지유 5)
 937. 奢 샤편 샤(지유 6) 938. 侈 [샤편] 치(지유 6)
 1037. 沐 목욕 목(지유 7) 1038. 浴 [목욕] 욕(지유 7)
 1085. 忍 츄름 안(지유 7) 1086. 耐 [츄름] 네(지유 7)
 1089. 嘗 맛볼 상(지유 7) 1090. 試 [맛볼] 시(지유 7)
 1105. 歡 즐길 환(지유 8) 1106. 娛 [즐길] 오(지유 8)

한자 사이에 합부선을 그은 것이 보인다. 위 ①, ②, ④, ⑤, ⑥에 나오는 보기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이 합부선은 여느 『類合』에는 원래 없던 것인데, 『類合

LUIHÖ』 원문에 독특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다른 연이어진 한자가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그은 것으로 보인다.³³⁾

『類合 LUIHÖ』에는 오류가 적지 않다.³⁴⁾ ‘홀’자에서 ‘·’가 빠진 것(1273. 窮 궁홀[홀] 궁(지유 9), 1312. 畀 인도홀[홀] 인(지유 9), 1362. 靈 령홀[홀] 령(지유 9))을 비롯하여 오류가 적지 않다. 먼저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6. 陸 여섯 𪛗[륙](지유 1) | 80. 昨 어제 𪛗[작](지유 1) |
| 287. 多 만홀[홀] 다(지유 2) | 291. 稷 꾀[피] 직[직](지유 2) |
| 633. 廳 마 𪛗[로] 령[령](지유 5) | 1132. 衛 호위[위] 위(지유 8) |
| 1144. 躍 썰 𪛗[약](지유 8) | 1214. 恨 홀홀[홀홀] 혼(지유 8) |
| 1258. 彩 치쇠[식] 치(지유 8) | |

『類合 LUIHÖ』에 보이는 다음 오기는 모본의 오기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613. 臀 불가[기] 둔(지유 4)³⁵⁾ 988. 吸 숨드릴 흙[흙](지유 7)³⁶⁾

33) 다른 연이어진 한자가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합부선을 긋지 않은 것도 있다.

34) 고영근 교수는 “모본이 지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기도 하고, 중국인 郭成章이 한글을 몰라 잘못 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영근(1989), 28.] 하지만 고영근(1989), 28에서 지적한 “初 19 처업[엄] 초(지유 1)”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모본 자체가 ‘업’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야동신판 『類合』에도 “初 처업[엄]초(治類 1 앞)”처럼 나와 있다.

35) 대비를 위하여 타 판본의 한자·새김·한자음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臀 불가[기]둔(治類 9 뒤) 臀 불가둔(乎類·戊類 11 앞, 武類·漚類 9 뒤)

臀 민둔(七類·靈類·松類 13 뒤) 臀 민^둔(仙類 13 뒤)

보기에서 ‘^’, ‘^’는 판각이나 인쇄 불량, 마멸의 경우에 글자를 바로 잡은 부분에 붙인 부호이다. 한글 글자꼴을 아는 이가 다른 글자꼴과 혼동하여 잘못 판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비교적 객관적)에는 ‘^’를, 다른 글자꼴로도 볼 수 있는 경우(비교적 주관적)에는 ‘^’를 해당 글자의 오른쪽 어깨에 표기한다. 이 ‘^’, ‘^’는 미루어 짐작한 것이므로, 보는 이에 따라 ‘^’, ‘^’이 넘나들 수 있을 것이다. ‘□’는 인쇄가 불량하거나 마멸하여 잘 안 보이는 글자에, ■는 인쇄 시나 후에 덧칠 등의 사유로 잘 안 보이는 글자에 붙인 부호이다 [손희하, “새김 어휘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1), 196 일러두기를 참조하길 바람].

출전에서 ‘七類’는 ‘칠장사장판본 『類合』’, ‘仙類’는 ‘선암사신간본 『類合』’, ‘靈類’는 ‘영장사서각본 『類合』’, ‘松類’는 ‘송광사개간본 『類合』’, ‘乎類’는 ‘호은재장판본 『類合』’, ‘治類’

- | | |
|--------------------------------------|---------------------------------------|
| 1010. 醒 쌀 성(지유 7) ³⁷⁾ | 1029. 賣 가질 책(지유 7) ³⁸⁾ |
| 1073. 思 식각 스(지유 7) ³⁹⁾ | 1127. 薦 천거 전(지유 8) ⁴⁰⁾ |
| 1132. 衛 호위[위] 위(지유 8) ⁴¹⁾ | 1327. 收 거물 슈(지유 9) ⁴²⁾ |
| 1330. 折 써글 절(지유 9) ⁴³⁾ | 1443. 稀 드물 회[희](지유 10) ⁴⁴⁾ |

위에 든 예들은 『類合 LUIHÖ』과 야동신판본 『類合』만 오자가 일치한다. 이

는 ‘야동신판 『類合』’, ‘武類’는 ‘무고신간 『類合』’, ‘戊類’는 ‘무신간판본 『類合』’, ‘滙類’는 ‘회동서관본 『類合』’의 약칭이다. 이하 동일함.

- | | |
|------------------------|---------------------------------------|
| 36) 吸 숨드릴흡(治類 14 뒤) | 吸 숨드릴흡(武類·滙類 14 뒤) |
| 吸 설금(七類·松類 21 뒤) | 吸 설흡(乎類·戊類 17 뒤) |
| 吸 드리뿔흡[흡](靈類 21 뒤) | |
| 37) 醒 쌀성(治類 15 앞) | 醒 윗성(七類 22 앞, 乎類·戊類 17 뒤, 武類·滙類 15 앞) |
| 醒 윗성(靈類 22 앞) | 醒 윗성[성](仙類 22 앞) |
| 醒 윗성(松類 22 앞) | |
| 38) 賣 가질책(治類 15 앞) | 賣 가질제(七類 22 앞, 武類·滙類 15 앞) |
| 賣 가'질'□(仙類 22 앞) | 賣 가'질'제(松類 22 앞) |
| 賣 가질지(乎類 18 앞) | 賣 가'질'서(戊類 18 앞) |
| 賣 출화가질□(靈類 22 앞) | |
| 39) 思 식각스(治類 15 뒤) | 思 상각스(仙類 23 앞) |
| 思 식각스(松類 23 앞) | 思 상각스(乎類 18 뒤, 武類·滙類 15 뒤) |
| 思 싱■스(戊類 18 뒤) | 思 스랑^스(靈類 23 앞) |
| 40) 薦 천거전(治類 16 뒤) | 薦 천거전(武類·滙類 16 뒤, 乎類·戊類 19 뒤) |
| 薦 기[거]천^" [천](七類 24 앞) | 薦 거천'천(仙類 24 앞) |
| 薦 기[거]천천'(松類 24 앞) | 薦 올니르[닐]친(靈類 24 앞) |
| 41) 衛 호위[위]위(治類 16 뒤) | 衛 호위위(武類·滙類 16 뒤) |
| 衛 시위' " [위](七類 24 뒤) | 衛 시^위위(仙類 24 뒤) |
| 衛 시위위(靈類·松類 24 뒤) | 衛 모실위^(乎類 19 뒤) |
| 衛 모실위(戊類 19 뒤) | |
| 42) 收 거물슈(治類 19 뒤) | 收 거둘슈(松類 28 뒤, 武類·滙類 19 뒤) |
| 收 기[거]둘슈(戊類 23 앞) | 收 기둘슈(乎類 23 앞) |
| 收 거두을슈(靈類 28 뒤) | |
| 43) 折 써글절(治類 19 뒤) | 折 써글절(武類·滙類 19 뒤) |
| 折 것□절(七類 28 뒤) | 折 깃'글'질(靈類 28 뒤) |
| 折 것글'절(松類 28 뒤) | 折 깃글절(乎類 23 앞) |
| 折 것글절(戊類 23 앞) | |
| 44) 稀 드물회[희](治類 21 앞) | 稀 드^물회(七類 31 앞) |
| 稀 드^물'회[희](靈類 31 앞) | 稀 드^물^회^[희](松類 31 앞) |
| 稀 크[드]물^회(乎類 25 앞) | 稀 드물회(武類·滙類 21 앞, 戊類 25 앞) |

들 판본 사이의 일치는 한글의 오자뿐만 아니라 한자 자형에서도 드러난다.⁴⁵⁾ 주요한 보기를 몇 들면 유합 21번째 한자는 『類合 LUIHÖ』·야동신판본·무교신간본·회동서관본 『類合』에는 ‘籌’자로 나오는데,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각본·송광사개간본·호은재장판본·무신간판본 『類合』에는 ‘筭’자로 나온다. 101번째 한자는 『類合 LUIHÖ』·야동신판본·무교신간본·회동서관본 『類合』에는 ‘冰’자로,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각본·송광사개간본·호은재장판본·무신간판본 『類合』에는 ‘氷’자로 나온다. 128번째 한자는 『類合 LUIHÖ』·호은재장판본·야동신판본·무교신간본·무신간판본·회동서관본 『類合』에는 ‘曆’자로,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각본·송광사개간본 『類合』 들에는 ‘歷’자로 나온다. 667번째 한자는 『類合 LUIHÖ』·호은재장판본·야동신판본·무교신간본·무신간판본·회동서관본 『類合』에는 ‘確’자로,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각본·송광사개간본 『類合』에는 ‘砧’자로 나온다. 860번째 한자는 『類合 LUIHÖ』·야동신판본·무교신간본·회동서관본 『類合』에는 ‘衾’자로,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각본·송광사개간본·호은재장판본·무신간판본 『類合』에는 ‘襟’자로 나온다.

이들 한글 새김과 한자의 일치, 특히 오자의 일치를 살펴볼 때에 지볼트 간행 『類合 LUIHÖ』의 모본은 야동신판본계 『類合』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類合 LUIHÖ』에는 다음과 같이 군데군데 ‘ㅇ’(옛이응)을 쓰고 있으나, 이는 ‘ㅇ’과 다르지 않다.⁴⁶⁾

142. 映 비철 영[영](지유 1)

299. 稅 공[공] 세(지유 2)

262. 用 뵈 울[용](지유 2)

569. 奴 종[종] 노(지유 4)

45) 오자 등 오류나 한자의 이동을 통한 『類合』 판본의 계통에 대한 정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별고로 미룬다.

46) 이는 모본의 글꼴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연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연구 자료로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자료인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 간행 『類合 LUIHÖ』를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이 문헌의 서지와 이 문헌에 나타난 정서·표기 모습 등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볼트 간행 『類合 LUIHÖ』는 독일 출신 네덜란드 의사인 지볼트가 1838년 네덜란드 레이던(Leiden)에서 출간한 『類合 LUIHÖ』의 초판본이다. 이 문헌은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레이던 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다. 고찰 대상인 국립국어원 소장본은 원소장자 라이먼(Benjamin Smith Lyman, 1835-1920)이 1874년 11월 29일 일본 에도(동경)에서 입수한 것으로 라이먼 사후에 라이먼의 상속인이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포브스 도서관(Forbes Library)에 기증(1921년 11월 30일 등록)한 라이먼 소장품의 하나였다가, 2017년 이래 국립국어원이 이를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검색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크기는 표지는 가로 29.65cm, 세로 37.35cm이고, 속지는 가로 29cm, 세로 36.75cm이다. 분량은 42쪽이다. 종이가 좀 산화하고 아래 부분에 약간 물기를 먹었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책의 구성은 ‘표제지 + 간지(1장 2면) + 유합 원문 전사(10면, 쪽 번호 1-10, 1512자) + 간지(1장 2면) + 부록(APPENDIX)[8면, 쪽 번호 1-8, 455자(또는 단어나 구), 참고 문헌 + A. 시조(조선가) 1수 + B. 한시 1(天地之間海爲大……) + C. 한시 2(三國既會此房中……)] + 독역 유합(LUIHÖ)(20면)’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유합·부록 등은 석인 평판 인쇄이고, 독일어 번역 부분은 활판 인쇄이다. 한글, 한자, 가나가 들어 간 원문을 전사한 부분인 유합·부록 등을 석인 평판 인쇄한 것은 간행자가 한글, 한자, 가나 문자의 자형을 최대한 모본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당시 네덜란드에는 한글, 한자, 가나 문자를 활판 인쇄할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인 간행을 위한 정서는 지볼트의 중국인 비서 郭成章(Ko Tsching Dschang)이 한 것인데, 오류가 적지 않다. 유합 원문 전사 부분 오류 중에는 모본의 오기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 이들은 오자나 한자 자형에서 야동신판본 『類合』과만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類合 LUIHÖ』의 모본이 야동신판본계 『類合』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類合 LUIHÖ』의 ‘유합’은 1512자본으로 1면 10行이며, 1行 16자, 총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느 조선 간행 『類合』과는 달리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 오른쪽에 한자 새김을, 한자 왼쪽에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 몇몇 한자는 새김을 달지 않은 것도 있으며, 연달아 나오는 두 한자의 새김이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새김을 한 번만 달거나 ‘同’자로 표기하고 있다.

『類合 LUIHÖ』의 ‘유합’에는 군데군데 ‘ㅇ’(옛이음)을 쓰고 있으나, 이는 ‘ㅇ’과 다르지 않다. 합부선은 연이어진 한자가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그은 것으로 보인다.

『類合 LUIHÖ』는 당시 조선의 ‘유합’을 외국인이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19세기 초 한국어 학습 자료요, 한자 학습 자료이며, 우리에게서는 한자 새김(훈)과 한자음, 국어 어휘 등 당시 국어 양상을 살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족한 국어사 자료를 보충해 주는 구실을 할 것이며, 국어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類合 LUIHÖ』에는 오자가 적잖은데, 모본과 대조 고찰하여 오자를 살피면 간행 당시 외국인의 한글 글꼴의 인식성과 정서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오자를 통하여 한글 글꼴 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오독하게 되는 글꼴의 잘못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볼트가 1838년 간행한 『類合 LUIHÖ』는 1852년판 『NIPPON』에 실린 합책 이전의 분책본 ‘『類合 LUIHÖ』’의 실물이 드러났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또 서구에서 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한 우리나라 서적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으며, 부록에 실린 독일어 ‘LUIHÖ’는 19세기 독일어 어휘자료 및 독일어 어휘사 자료로, 일본어 훈과 음 등은 19세기 일본어 학습 자료 및 일본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가. 1차 자료

- 『類合』 武橋新刊本. 목판본. 19세기 중엽.
『類合』 戊申刊板本. 목판본. 19세기 중엽-말엽?.
『類合』 仙巖寺新刊本.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소장. 목판본. 17세기 중엽?.
『類合』 松廣寺開刊本.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소장. 목판본. ; 영인판. 1730.
『類合』 治洞新板本. 목판본. 19세기 중엽.
『類合』 靈藏寺書刻本. 유탁일 소장. 목판본. ; 영인판. 1700.
『類合』 七長寺藏板本.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소장. 목판본. ; 영인판. 1664.
『類合』 平隱齋藏板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목판본. 18세기 중엽-말엽?.
『類合』 滙東書館本. 고유상. 회동서관, 1918.
『類合』 지볼트 간본. Philipp Franz von Siebold. 類合 LUIHÖ, sive
VOCABULARIUM SINENSE IN KÔRAÏANUM CONVERSUM
; Opus Sinicum in pemimsula Kôrai impressum. 네덜란드 Leiden.
Lugduni Batavorum, 1838.

나. 전자 자료

- 손희하. 새김 어휘 자료 말뭉치. 1.5판. 2004.

다. 논저

- 고영근. “지볼트의 한국기술 연구.” 『동양학』 19(1989). 1-36.
손희하. “국어사 연구와 서지학.” 『한국언어문학』 37(1996). 97-115.
손희하. “새김 어휘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1.
손희하. “石峰千字文 板本 研究.” 『한중인문학회』 33(2011). 185-210.
손희하. “治洞 新板 <類合>에 대하여.” 2008년도 제21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
대회: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2008. 330-340.

- 손희하. “지볼트판 <類合>에 대하여.”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국어사학회 2007년 겨울 연구회 논문집』 (2008). 109_1-109_10(본문), 110_1-110_9. (부록).
- 안병희. “해제.” 동양학연구소. 『新增類合』.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213-236.
- 유석재. 조선시대 우리나라 한자학습서 ‘유합’. 조선일보(2006. 4. 11.).
- 이기문, 손희하 편. 『천자문 자료집』(지방천자문 편). 박이정출판사, 1995.
- 이석구. “유합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라. 웹사이트

유합(類合, LUI HO). 디지털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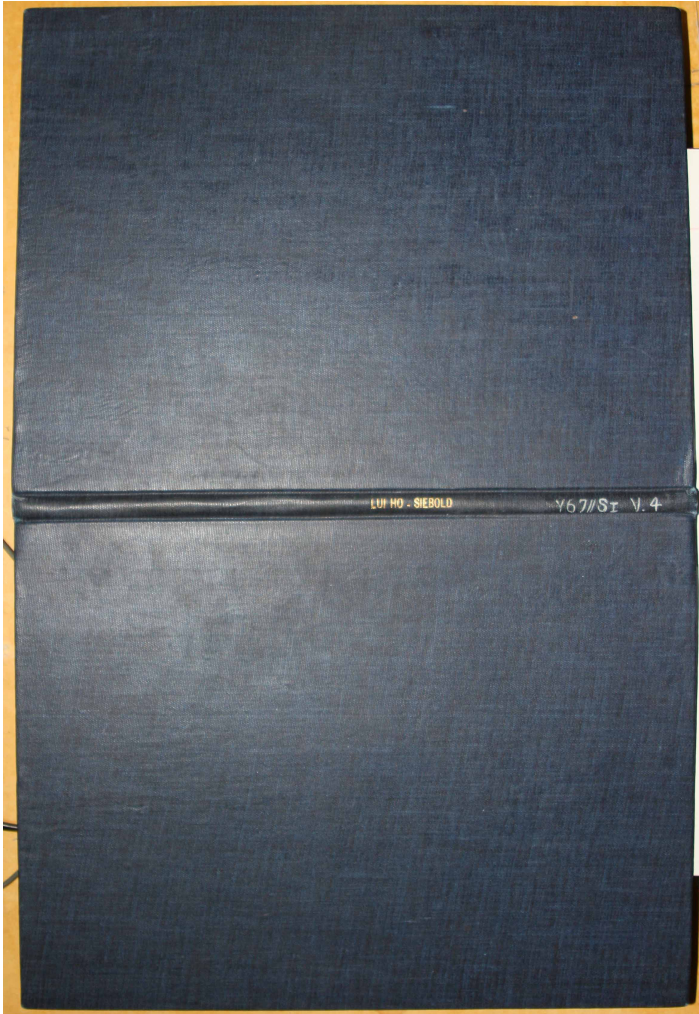
<<http://archives.hangeul.go.kr/scholarship/archives/view/128?searchEnable=1&keyword=유합&sorting=regno&pm=by20&page=1>>

Benjamin Smith Ly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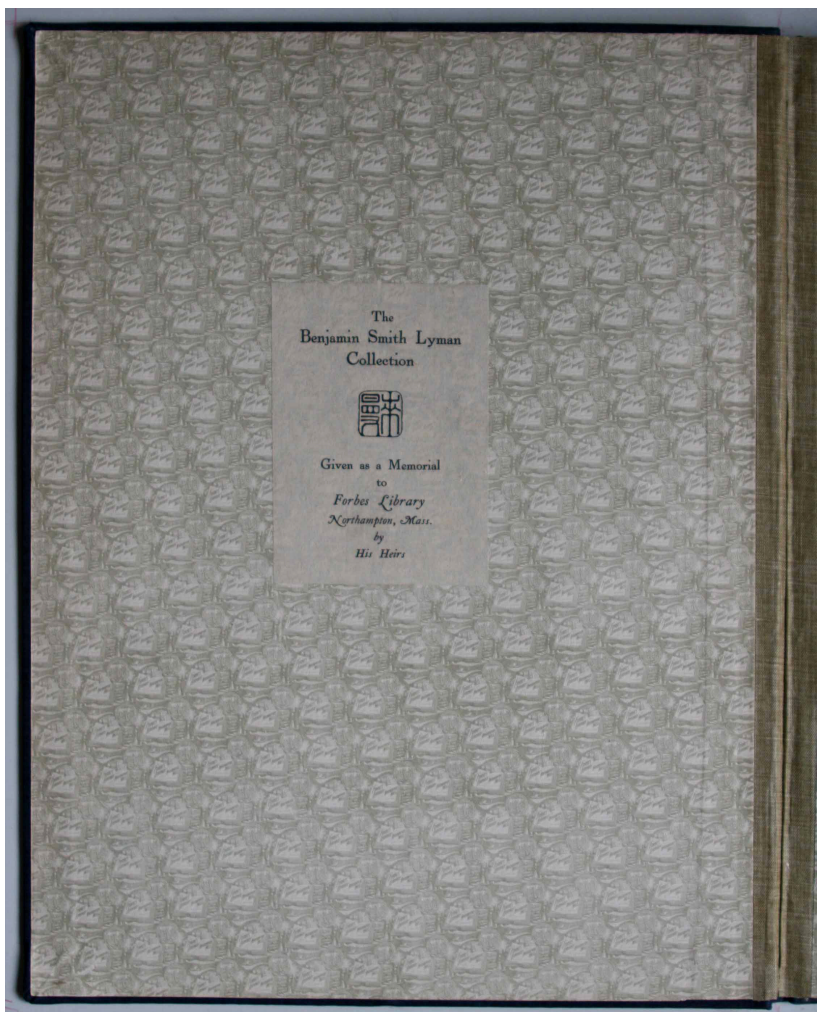
<https://en.wikipedia.org/wiki/Benjamin_Smith_Lyman>

<<http://www.mtholyoke.edu/~sdomier/lyma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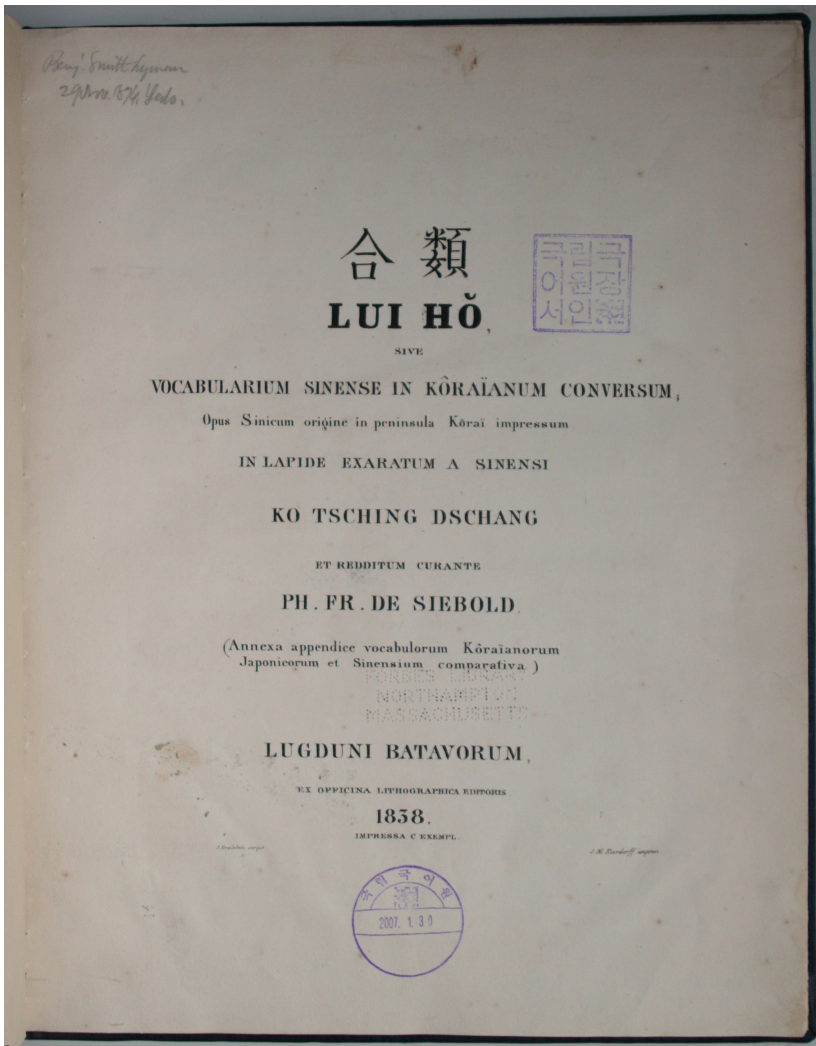
[부록] 『類合 LUIHŌ』 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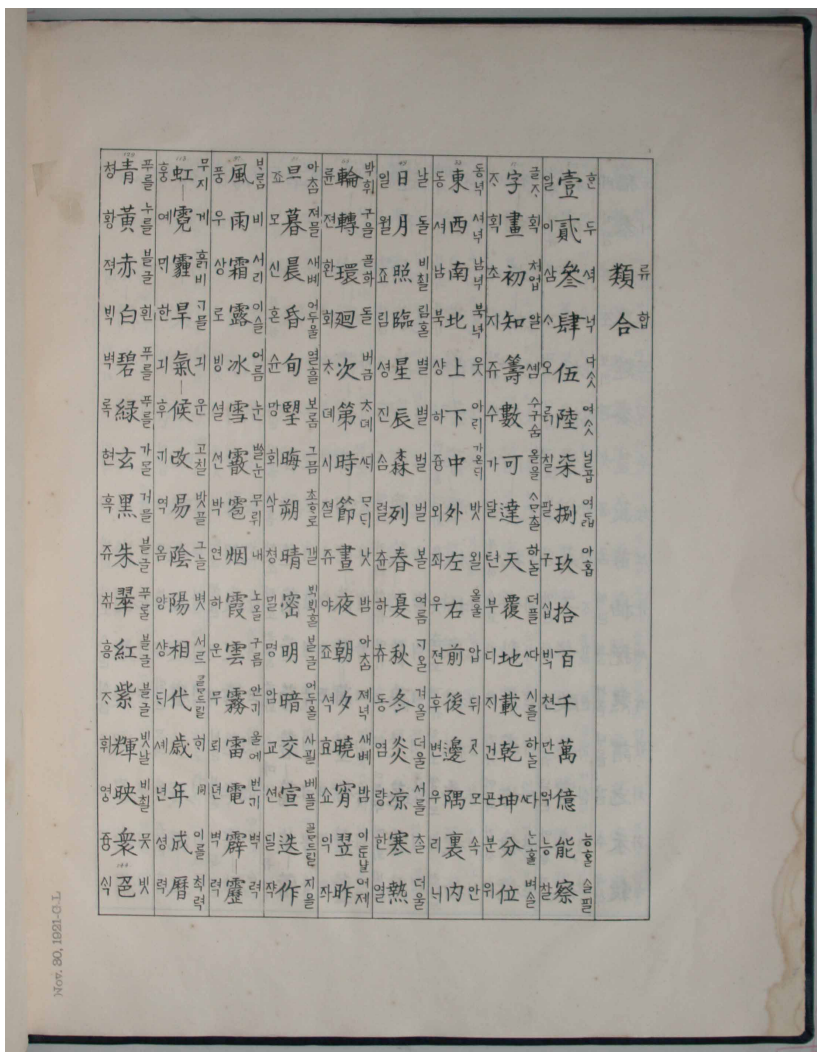
<사진 1>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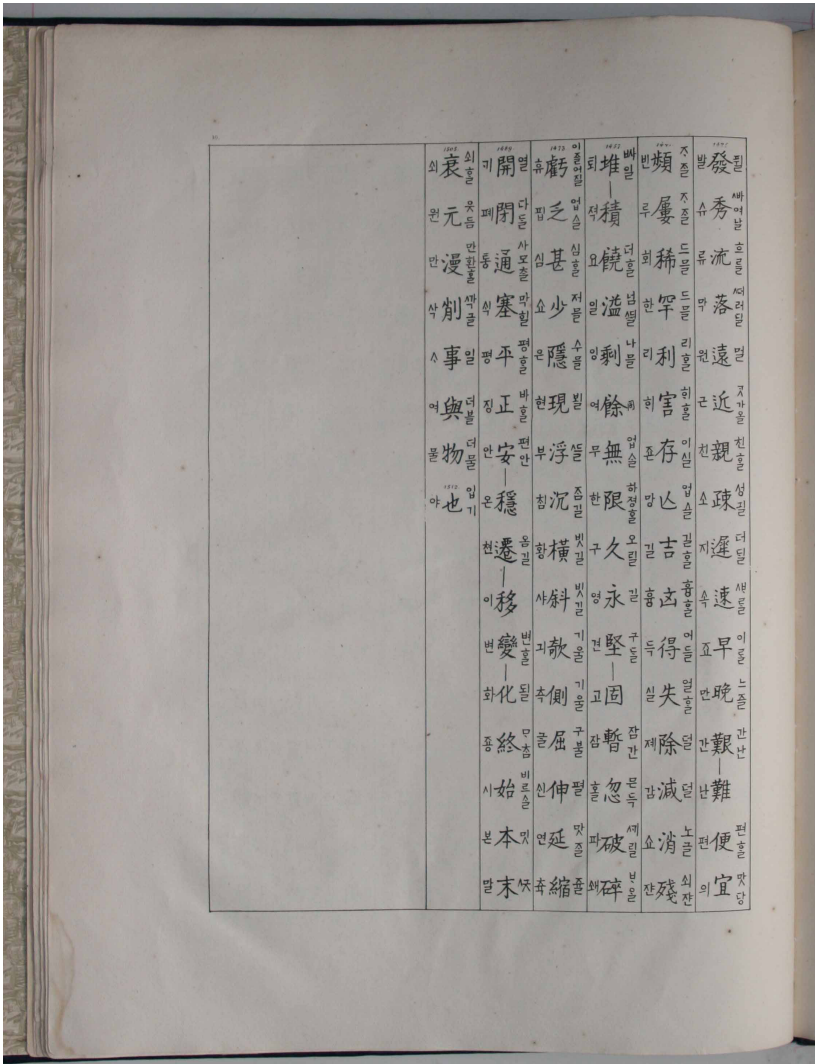
<사진 2> 앞표지 안면



<사진 3> 표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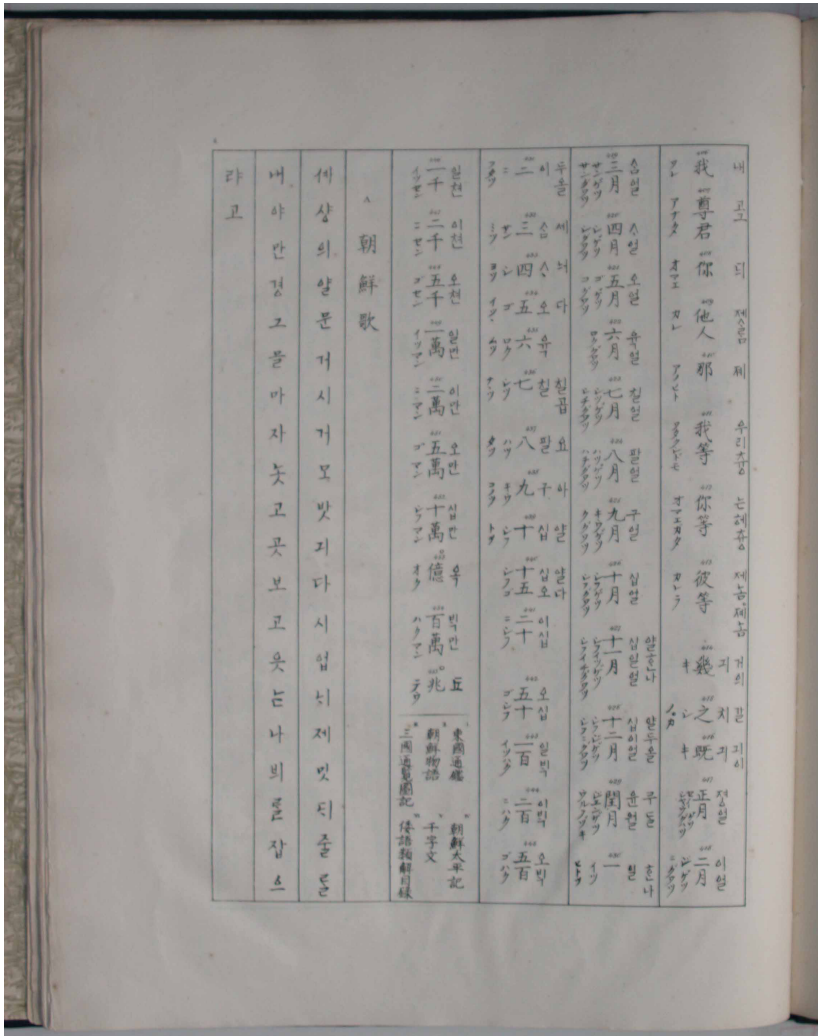
<사진 4> 유합 원문 전사 첫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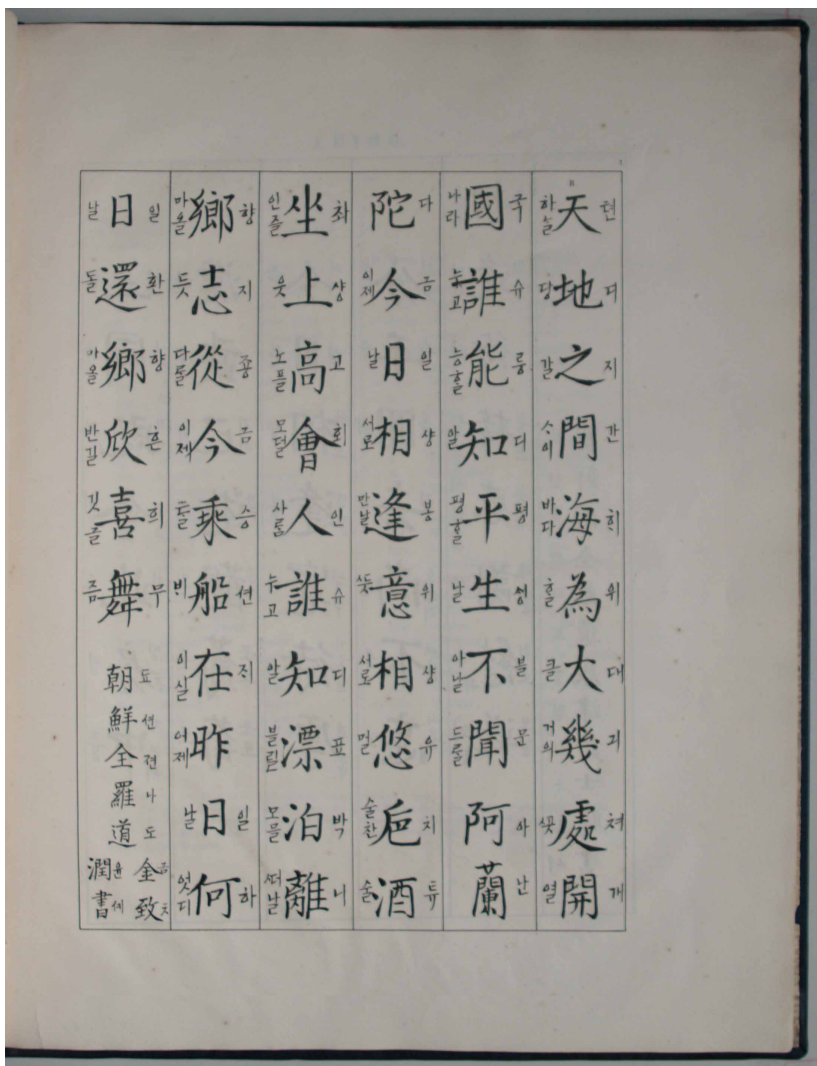
<사진 5> 유합 원문 전사 마지막 면

APPENDIX.											
獸 ^{クニ} 수	坂 ^{サカ} 고개	岩 ^{イワ} 바위	旦 ^{タタ} 한	雪 ^{ユキ} 눈	天 ^{テン} 하늘	犬 ^{イヌ} 개	林 ^{リン} 숲	嚴 ^{ガン} 암바	晝 ^{ヒル} 낮	氷 ^{ヒョウ} 얼음	地 ^チ 땅
猫 ^{ネコ} 고양이	水 ^{スイ} 물	海 ^{カイ} 바다	晝 ^{ヒル} 낮	霜 ^{フユ} 서리	空 ^{クウ} 공	牛 ^{ウシ} 소	火 ^カ 불	池 ^チ 못	晚 ^{バン} 늦	露 ^ロ 이슬	空 ^{クウ} 공
馬 ^{ウマ} 말	木 ^キ 나무	泉 ^{セン} 천	湖 ^코 호수	風 ^{フウ} 바람	明 ^{メイ} 밝	馬 ^{ウマ} 말	水 ^{スイ} 물	川 ^{セン} 하천	雨 ^{アメ} 비	風 ^{フウ} 바람	氣 ^キ 기
馬 ^{ウマ} 말	金 ^{キン} 쇠	川 ^{セン} 하천	湖 ^코 호수	雷 ^{ライ} 벼락	日 ^{ニチ} 날	馬 ^{ウマ} 말	土 ^ド 흙	江 ^{カウ} 강	春 ^춘 봄	月 ^{ゲツ} 달	日 ^{ニチ} 날
水 ^{スイ} 물	石 ^{セキ} 돌	江 ^{カウ} 강	夜 ^ヤ 밤	春 ^춘 봄	月 ^{ゲツ} 달	水 ^{スイ} 물	玉 ^{ギョク} 보석	波 ^ハ 파	夏 ^카 여름	星 ^{セイ} 별	星 ^{セイ} 별
羊 ^{ヤウ} 양	金 ^{キン} 쇠	流 ^{リュウ} 흐름	朝 ^조 아침	秋 ^추 가을	星 ^{セイ} 별	羊 ^{ヤウ} 양	銀 ^{ギン} 은	渚 ^{ショ} 물가	冬 ^동 겨울	東 ^동 동	東 ^동 동
羊 ^{ヤウ} 양	銅 ^동 구리	渚 ^쇼 물가	朝 ^조 아침	冬 ^동 겨울	西 ^서 서	羊 ^{ヤウ} 양	錫 ^스 납	野 ^야 야	年 ^년 년	南 ^남 남	南 ^남 남
狼 ^랑 늑대	銅 ^동 구리	野 ^야 야	日 ^일 날	年 ^년 년	南 ^남 남	狼 ^랑 늑대	雲 ^운 구름	島 ^도 섬	月 ^월 달	北 ^북 북	北 ^북 북
虎 ^호 호랑이	雲 ^운 구름	島 ^도 섬	阿 ^아 아	月 ^월 달	北 ^북 북	虎 ^호 호랑이	母 ^모 어	田 ^덴 밭	日 ^일 날	雲 ^운 구름	雲 ^운 구름
兔 ^{토끼} 토끼	母 ^모 어	田 ^덴 밭	蘭 ^란 란	日 ^일 날	雲 ^운 구름	兔 ^{토끼} 토끼	硫 ^{리우} 황	臺 ^대 대	曉 ^효 새벽	雨 ^우 비	雨 ^우 비
鯨 ^경 고래	硫 ^{리우} 황	臺 ^대 대	山 ^산 산	曉 ^효 새벽	雨 ^우 비	鯨 ^경 고래	黃 ^황 황	所 ^소 바	雲 ^운 구름	雲 ^운 구름	雲 ^운 구름
鳥 ^조 새	鹽 ^염 소금	所 ^소 바	谷 ^곡 밭	雲 ^운 구름	雲 ^운 구름	鳥 ^조 새	南 ^남 남	所 ^소 바	雲 ^운 구름	雲 ^운 구름	雲 ^운 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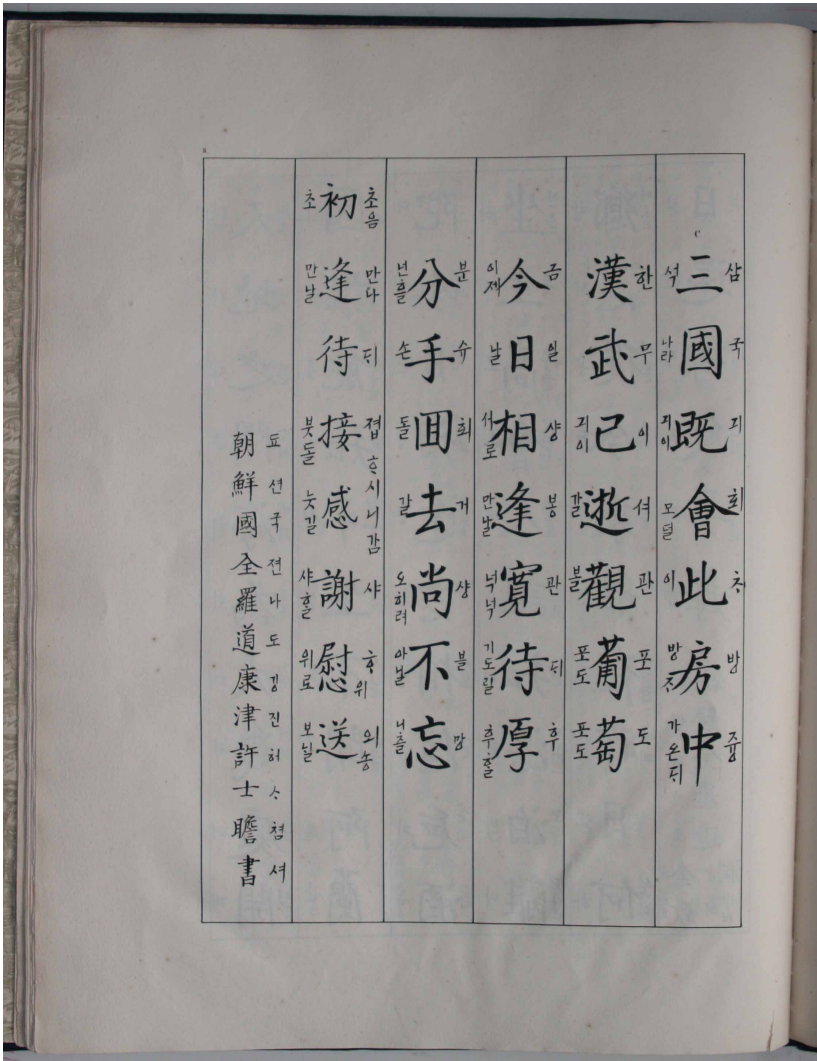
<사진 6> 부록(APPENDIX) 첫 면



<사진 7> 참고 문헌·시조(조선가)



<사진 8> 한시 1



<사진 9> 한시 2

LUIHÖ.			
SCHINESISCH		KORAISSCH.	
10. KORAISSCHEN DIALECT.			
1 JIR	1	hün	33 Tong Ost
ji	2	tu	sjö West
sam	3	sjök, sük	nam Süd
sä	4	nök	puk Nord
5 O	5	tasäs, tasät	37 Sjang oben
lök	6	jö sä, jö sät	ha unten
ts'ir	7	nir kop, nir kop	tsjung Mitte
p'ar	8	jö tälp	öi aussen
9 Ku	9	a hop	41 Tsoa links
sip	10	jör	u rechts
pök	100	(1)	tsjön vorne
ts'jön	1000		hu hinten
13 Man	10000		45 Pjön Seite, an, bei
ök	1000000		u Ecke
nüng	können (2)	nüng här	ri innerhalb
ts'ar	erforschen	sür p'ir	nöi innen
17 Tsö	Schriftbild	kür tsö	49 JIR Sonne
höik	Schriftzug	höik	uör Mond
ts'ü	Anfang	ts'ööp	tsjo Licht
tsi	wissen	ar	lim niederkommen
21 Tsju	zählen	sém, hem	53 Sjong Stern
su	Zahl	suku sum	tsin Sternbild
ka	können	orür	süm Reiche
tar	durchdringen, verstehen	sümät's ar	ljör ordnen
35 T-JÖN	Himmel	hanür	57 Ts'jun Frühling
pu	Halle	tö p'ür	ha Sommer
ti	Erde	sta, tta	ts'ju Herbst
tsöi	Inhalt	sirür	tong Winter
29 Kün (3)	Himmel	hanür	61 Jöm Wärme
kon	Erde	sta, tta	liang Kälte
pun	vertheilen	nön här	han Frost
ni	Rang	pjö sör	jör Hitze
			ts'ür
			tö ur

(1) Wo das kor. Wort fehlt, wird durchaus das chinesische gebraucht.
 (2) Die Wörter 15-24 geben folgenden Sinn, der an eine Maxime des Buches der drei Werte erinnert: »Ein richtiges Verständnis der Schriftzüge ist der Anfang des Wissens; die Zahlen müssen begriffen sein.«
 (3) T-jön ts beissen Himmel und Erde nach ihrer Gestalt; kon kon nach ihrer Beziehung zu einander als Regierendes und Regiertes.

<사진 10> 독역 유합(LUIHÖ) 첫 면